

장흥, ‘블루에너지 팜’ 조성한다

1조5,000억원 규모 업무협약
농업 단지화 고부가가치 육성
지역 6차 산업기반 확보 기대

장흥군이 1조5,000억원 규모의 ‘블루에너지 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장흥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SK에코플랜트 이왕재 BU대표, 현대일렉트릭 박상훈 BU대표, 교보약사 오주석 BU대표, 하이퓨얼셀 이형영 대표, 블루에너지팜 신현주 대표가 참석했다.

블루에너지 팜은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 팜을 결합한 융복합산업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장흥군 관산을 삼산간척지 일대에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유리온실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나오는 전기, 열, CO₂를 온실운영에 적절히 활용하는 사업이다.

장흥군은 신재생에너지와 결합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통해 지역 6차 산업 기반 확보를 대



장흥군이 최근 장흥군청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블루에너지 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흥군 제공

하고 있다.

지역 농업의 단지화, 규모화로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까지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단지 조성과 전문적인 기술결합을 위해서는 대기업 민간투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흥군과 참여 기업들은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토지매입

(임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농업 6차 산업의 집약체인 신재생에너지 블루에너지 팜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군 인구 늘리기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장흥군과 투자기업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이옥현 기자

해군 3함대, 비상상황 선박통제·보호 ‘총력’

민·관·군 협업회의 개최

해군 제3함대사령부가 비상상황시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선박통제 및 보호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26일 해군 제3함대사령부대에 따르면 3함대는 최근 대회의실에서 유사시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한 민·관·군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선박통제 및 보호 작전에 대한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한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업회의는 코로나19 상황 이후 선박통제 및 보호 관련 전군단위에서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 민·관·군 실무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민간에서는 한국해운협회, 수협중앙회, 여수 광양항만공사 등 9개 기관이,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서해어업관리단 등 9개 기관이, 군에서는 합참, 연합사, 국군수송사 등 10개 부대(서)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3함대는 협업회의에서 선박통제 및 보호 작전의 개요와 중요성·단계별 임무, 태평양·인도양 해운실무단(PACIOSWG)의 임무 및 목적,



해군 제3함대사령부는 최근 대회의실에서 민·관·군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벨부이 연습의 역사와 연습 개념을 소개했다.

또한, 회의에 참여한 민·관·군 기관의 실무자들은 선박통제 및 보호 작전 시 선박의 행동지침, 출·입항 절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특히, 회의에서는 선박통제 및 보호 작전에

따른 민간분야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토의하고, 해양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활발한 의견교류가 이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상에서의 위협 발생 시 효과적인 선박통제 및 보호 작전 수행 방안을 발전시켰다.

/목포=김동균 기자

진도, 착한가격업소 16곳 지정

진도군이 3고(물가·금리·환율)시대에가성비 좋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했다.

26일 진도군에 따르면 요식업, 이미용업 등을 운영하는 업소 중 대표 품목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지 않고 위생상태 등 현장심사를 통과한 16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했다.

착한 가격업소는 가격, 위생·청결, 품질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으며, 이번에 지정된 업소는 지정서 교부와 함께 종량제 쓰레기 봉투와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는 소정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고물가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면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가 많아지길 바란다”며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계속 확대하고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역 물가 관리를 위해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진도=박병호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나주권역보증센터가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 2022년 청년 후계농 전라권 간담회에 참석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나주권역보증센터 제공

농신보 나주센터, 청년후계농 전라권 간담회 참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나주권역보증센터(센터장 고미라)는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 2022년 청년 후계농 전라권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농신보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개최된 행사로 청년농업인 정책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전라권 청년후계농 13명, 농식품부,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신보 나주센터 담당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및 우수사례발표, 개선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고미라 센터장은 “이번 간담회 참여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완도사랑상품권 모바일 결제 내달 도입

가맹점 부담 수수료 없어 ‘호응’

완도사랑상품권 모바일(QR) 결제 시스템이 오는 8월부터 도입된다.

26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부정 유통 문제, 카드형은 가맹점에 수수료 부담이 있었으나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고,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어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품권 발행 비용과 판매·환전 수수료 예산 절감, 판매 대행 점의 업무 간소화 등 부가적인 순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완도사랑상품권은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 코드를 찍고 구매 물품의 금액을 입력한 뒤 지문이나 간편 비밀번호(PIN)로 인증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앱 ‘지역 사랑상품권 chak(착)’을 통해 상품권 발급과 충전, 사용 내역,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완도=최규욱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사)함께하는사랑발, 장흥군에 5천만원 후원

장흥군은 최근 (사)함께하는사랑발(이사장박희철)에서 5,0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열악한 재래식화장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정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실내화장실 및 정화조 설치, 장호, 문 등 화장실 주거환경개선에 사용된다.

기탁식에 참석한 임광심 이사는

“장흥군과 함께 어르신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후원해준 (사)함께하는사랑발 이사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군에서도 꾸준히 어르신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흥=이옥현 기자



송하전업사 박동영 대표, 장학금 기탁

목포시는 최근 송하전업사 박동영 대표이사가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대표는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를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인재 양성 등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흥을 시장은 “코로나19, 물가상승 등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장학금을 기탁한 박동영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단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농어촌공사 나주시사, 환경정화 행사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지사장 김선일)는 최근 나주시 다시면에 있는 백용재 일원에서 다시면사무소와 함께 ‘클린나주 내고향물살리기 환경정화행사’를 가졌다.

이날 환경정화행사는 농업용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대농업인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실시됐으며, 다시면사무소와 함께 방문객들이 투기한 쓰레기

를 집중 수거하고 수질오염원에 대한 합동순찰을 하는 등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저수지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체제 구축에 첫 단추를 끼웠다.

김선일 지사장은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농업인에게는 깨끗한 농업용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충권 기자